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광주 중국집의 김치

한국의 오래된 도시에는 유서 깊은 식당들이 있다. 그중에서 중국집의 존재도 뚜렷하다. 화교는 임오군란 이후 조선반도에 들어와 살다가 1949년 중국에 인민공화국이 생기고 국교가 단절되면서 생겨난 구체적인 디아스포라다. 화교란 말 자체가 이주한 자를 뜻하는 '교'(僑)라는 한자를 쓴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화교의 주업이 포목점과 주물, 이발, 채소 재배,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에 선명한 중국집이다.

광주는 화교세가 꽤 셌다. 호남의 목포·군산·전주·익산과 함께 화교 학교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초 교육을 감당했다. 인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학교를 열 수 없었다. 화교는 광주에도 많은 중국집을 열었고 시대에 따라 명멸했다. 그중에서 시내에서 아직도 영업하면서 중국집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집들이 있다. 금남로에 이웃해 있는 영안반점과 제일반점이다.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외지인이자 중국요리사, 중국집 역사를 공부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중식당, 중국집은 너무도 반갑다. 우선 구도심에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연회를 하거나 한 상 접대할 때 마땅한 집이 많지 않았다. 중식당은 연회석이 좋았고, 시내에 있는 결혼식장의 피로연이나 회갑연, 약혼식 등을 치르기에 적당했다. 도심 중식당은 이런 행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 호텔과 뷔페집이 생기면서 더 이상 중식당의 몫이 아니었다. 게다가 시내가 소위 '원도심'이 되면서 힘을 많이 잃었다. '원'(元)이란 옛것이란 뜻이고, 냉정히 말하면 신도심이 생겨서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런 판국에 시내에서 역사를 증거하며 장사하고 있는 두 중국집의 존재가 반갑지 않겠는가.

메뉴에도 오랜 역사의 코드가 숨겨져 있다. 두 집 다 이른바 '식사부'(옛날 중국집은 식사부, 요리부로 메뉴를 나누는 것이 관습이었다) 맨 위에 짜장면, 우동이 순서대로 올라가 있다. 사실, 요즘 중국집에는 우동을 거의 팔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는 우동 파는 집은 손에 꼽는다. 짬뽕의 매운맛에 밀려 버린 셈이다. 담백하고 심심하고 시원한 국물 대신 짬뽕의 강렬함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두 노 중국집의 메뉴가 반가울 수밖에.

또 만두를 손수 빚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요즘 일손이 줄고 군만두가 '서비스' 즉 공짜가 되면서 손으로 빚는 만두를 포기하는 중국집이 99.9퍼센트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손 만두를 지키고 있는 이런 집들이 과장해 말해서 감격스러울 지경이다. 심지어 물만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원래 중국집에는 군만두보다 물만두, 찐만두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런 만두들이 사라지고 군만두만 남은 이유를 몇 가지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군만두를 철판에 지지지 않고 기름에 튀기듯이 요리하면서 주방의 공력을 덜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철판에 지지는 것보다는 튀기는 것이 아무래도 손쉽다. 식용유가 대량으로 싸게 유통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밖에도 튀기는 군만두가 훨씬 자극적인 맛이어서 물만두나 찐만두를 밀어냈으리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들 노(老)중국집에는 수초면과 난자완스밥(제일반점), 오므라이스(영안반점) 같은 전설적인 식사 메뉴들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면 놀라운 일이다. 신세대는 잘 모르는 음식들이다. 어쩌면 잘 팔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이 메뉴들을 껴안고 있는 주인들의 생각과 뚝심에 고개가 수그러진다. 오므라이스, 콩국수, 국밥 같은 메뉴를 파는 것은 화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생존했는가를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버텨 내야 했던 화교들의 중국집은 현지화에 공을 들였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메뉴라면 중국집의 정체성 안에서 기꺼이 만들어 팔았다. 중국식 냉면도 중국에는 없는 음식이다. 얼마 전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작은 강연을 했다. 짜장면과 짬뽕이라는 주제였다. 한 관객이 이런 질문을 했다.

"광주의 중국집에서 가장 지역성이 강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광주의 중국집은 김치를 맛있게 냅니다. 서울은 밥 메뉴를 시키지 않으면 대개 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는 김치도 맛이 없습니다. 광주나 호남 지역의 중국집에서는 특이하게도 맛있는 김치를 냅니다. 심지어 겉절이, 묵은지를 따로 내는 집도 봤습니다. 이게 광주 중국집의 지역성입니다."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관객들은 수긍하는 듯했다. 그렇다. 같은 화교라도 지역마다 현지화의 방법이 달랐다. 그런 점에서 더욱 광주의 중국집 문화를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지켜가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믿는다. 〈음식칼럼니스트〉

기 고

축구의 기본기, 정치의 기본기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유럽은 축구의 대륙이다. 마을마다 축구장이 있고,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지역 연고에 기반한 팀들이 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배운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도 어린 시절 동네 축구팀 골키퍼였다. 카뮈는 축구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의 도덕과 의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축구에서 배웠다."

손흥민이 유럽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득점왕.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 유럽 5대 리그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2021~2022시즌 평점을 매기면서 토트넘 소속 선수 중에서 손흥민에게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줬다. 풋볼 런던이 손흥민에게 10점을 준 이유는 다름 아닌 팀에 대한 그의 공헌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었고 자신의 기록은 차순위였다.

손흥민의 팀 중심 사고는 지난 5월 13일 아스널팀과의 경기에서 잘 드러났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직접 페널티킥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팀의 승리를 위해 욕심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당시 손흥민의 득점은 EPL 1위인 리버풀팀의 살라와 단 한 골 차이였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욕심을 버리고 팀의 페널티 키커인 케인에게 볼을 건넸다.

손흥민을 거쳐 간 감독들은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를 하나 같이 그의 인성에서 찾는다. "손흥민은 실력만큼이나 인성도 월드클래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이 아들을 키우면서 축구 기술 습득 이전에 먼저 겸손할 것을 가르친 덕분이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에게는 '손흥민존'과 '감아 차기'가 있다. 손흥민의 감아 차기는 기본기로부터 착실하게 쌓아 올린 훈련의 결과물이다. 아버지는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가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리프팅만 시켰다. 손흥민은 리프팅 연습에만 대략 7년이 걸렸다. 손웅정 씨는 손흥민에게 리프팅, 드리블, 패스, 슛 순서로 기본기를 가르치고 매 순간 겸손을 가르쳤다. '감아 차기'는 마지막 단계의 연습이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급 축구 실력과 성과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있다. 이런 손흥민을 뒷받침하는 것이 빼어난 인성과 탄탄한 기본기에 바탕을 둔 축구 실력이다. 기본기에 충실하니 부침이 없고, 항상 겸손한 자세와 인성을 갖췄으니 스캔들이 없다. 거기에 개인보다 팀을 우선에 두니 동료와 팬들에게 사랑받는다.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 갖춘 기본기라고 하겠다.

탄탄한 축구 기본기, 겸손한 태도, 팀워크 우선. 이 세 가지는 손흥민은 갖췄지만, 우리 정치가 갖추지 못한 것들이다. 물론 한국 정치를 손흥민에게 빗대어 보는 것은 민망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를 더러운 것, 욕먹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反)정치주의 사회에서 손흥민이라는 본보기를 통해 '좋은 정치'를 고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손흥민의 축구로부터 우리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명료하다. 기본이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손흥민의 축구는 국민에게 행복을 준다. 손흥민에 이르러 우리 국민은 행복감으로 하나가 된다. 경제적 격차, 사회 양극화로 인한 상실감을 손흥민의 축구가 잠시나마 잊게 만든다. 국민 통합을 본령으로 하는 우리 정치가 단 한 순간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다.

축구에 기본기가 있듯, 정치에도 기본기가 있다. 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다툼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기본기는 그런 것을 판단하고 지켜내는 신념이자 태도라 할 수 있다. 정치의 기본기가 상실되면 주권자인 국민을 잊게 되고, 극단적인 주장 앞에서 정치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

축구와 정치는 투쟁적인 인간 본성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원시성'을 갖는다. 축구는 태클과 몸싸움이 허용되고, 승패의 결과물로 공동체에 환희와 감동 또는 좌절을 선사한다. 정치도 전쟁과 같은 치열함 속에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드물게 유권자들에게 환희를 선물하기도 한다. 손흥민의 축구가 충실한 기본기로 국격을 올리고 국민에게 행복을 선사했다면, 지금은 우리 정치가 손흥민의 축구에서 배움을 얻을 때다.

의료칼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면

임경옥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전임의

치과병원을 찾는 분들이 흔히 호소하는 불편함 중 하나는 음식물이 치아에 잘 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사할 때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인데,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며 때로는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끼어 제거 되지 않는 음식물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원인 중에 하나는 치아의 인접면에 생긴 치아우식 때문이다. 치아우식으로 인해 치아 형태가 일부 상실되면 그 부위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끼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치아우식 치료를 통해 음식물이 끼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음식물이 끼는 현상은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후에 생기기도 한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보철물의 형태나 크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의 위치와 배열 또는 잇몸의 형태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또는 오랫동안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 치아가 전방으로 이동해 치아와 보철물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에도 음식물이 잘 낄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해 잇몸이 내려갔을 때도 예전과 달리 음식물이 더 잘 낄 수 있다. 이렇듯 보철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만 보아도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화나 치주질환에 이환돼 치조골이 점점 내려간 경우에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된다. 인접한 치아 사이의 삼각형 공간을 치간 공극이라고 하는데, 치아의 형태나 위치에 변화가 없을 때 잇몸이 점점 내려간다면 이 치간 공극은 점점 커지고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된다. 따라서 젊은 환자보다는 나이 든 환자들이, 치주질환이 심한 부위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한다. 치주질환이 있는 부위는 치주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치조골 결손 형태에 따라 재생형 치주 수술을 시행해 잇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있거나 치주질환이 회복된 분들은 음식물이 끼는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주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스스로 구강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한다.

음식물이 끼어 잔류하게 되는 치아의 인접 면은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효과적으로 닦이지 않는 부위이다. 특히 대구치와 소구치의 치간 공극은 치태가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위로, 이 공간의 치태 제거는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치아우식증 역시 빈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아 사이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구강위생 보조 기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워터픽 등이 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환자나 환자의 구강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히 선택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치실은 일반적으로 치간 공극이 정상이거나 크지 않은 경우 사용되며, 적절히 사용했을 때 인접 면의 치태를 80%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잇몸 하방으로 2~35㎜까지 삽입될 수 있기 때문에 치은 연하(이의 뿌리에 가까운 쪽의 조직)의 치태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 올바르게 치실을 사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항은 치실이 치아 인접 면을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앞뒤 치아에 각각 기대어 C자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잇몸 하방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상하 운동을 부드럽게 치아면을 따라 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 치실을 사용하기 위한 손놀림이 어렵거나 치간 공극이 큰 분들이라면 치간 칫솔을 추천한다. 치간 칫솔을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알맞은 크기의 솔을 선택하는 것인데, 치간 칫솔이 치간 공극보다 약간 더 클 때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은 단지 식사의 질을 낮추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구강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구강 내에 발생한 문제를 알려 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이 같은 불편함을 갖고 있다면 가까운 치과를 찾아 적절한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란다.

社 說

국힘 압승, 민주 참패…민심은 안정 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민선 8기 4년을 책임질 지방자치 일꾼들을 선출하는 장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변화를 요구했다.

개표 결과 2일 오전 1시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열일곱 곳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열세 곳에서, 민주당은 네 곳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앞서가고 있다. 또 일곱 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네 곳, 민주당은 세 곳에서 앞서가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열네 곳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패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싹쓸이한 데 이어 국회의원 보선까지 압도적 승리를 기록함으로써 전국 정당 기반과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15%이상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성 비위 의혹과 지도부 분란까지 불거져 민심의 외면을 불렀다. 선거 때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광주의 투표율이 4년 전보다 20%포인트나 하락한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일당 독점을 이어온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 국가 균형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도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수사 하나 안 하나

광주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사법 당국의 수사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올 봄부터 일부 비양심적인 안과 병의원들이 브로커를 끼고 조직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여 수술을 받게 한 후 실손보험 청구액 일부를 소개자나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로 정부 재정을 축내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수술로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행위다. 안과들이 백내장 수술 환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고령화시대 백내장 수요가 많은데다 한 건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비양심적인 안과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대신할 수 있고 병원에서 주는 소개비까지 받을 수 있다며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꾀고 있다. 실제로 지인의 소개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환자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특별 포상금을 내걸고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를 받고 있고 보험회사들이 심사를 강화했는데도 브로커에 속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떨어져 재수술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환자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꾐에 넘어가 수술을 했지만 보험회사의 거부로 수술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한다.

이런데도 경찰은 한참 전에 첩보를 입수하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피해가 속출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자세와도 배치된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김냇과 트리오

최근 출간된 '메디치'(전 3권·문학동네)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군림했던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소설이다. 350년간 역사를 이어가며 네 명의 교황과 두 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했던 메디치는 교황이 암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한 가문이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하는 등 권력의 정점에 섰고, 정적에 대한 과감한 처단도 불사했던 메디치 가문의 또 다른 얼굴은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한 문화예술 후원자의 모습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에 '모나리자' '천지창조' 등 세계 미술사를 장식하는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었다. 이후 메디치는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메세나'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문이 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김냇과 트리오' 연주회는 소박한 메세나가 꽃을 피운 뜻깊은 공연이었다. 지난 2019년 창단한 '김냇과 트리오'는 (주) 영무토건이 후원하는 클래식 연주 그룹이다. 영무토건은 오래된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공간 '김냇과'를 운영하며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처음으로 정식 클래식 공연장인 금호아트홀에서 열려 더 의미가 있었다. 연주 레퍼토리도 드보르작의 '둠키'와 함께 익숙한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대신, 조금은 낯선 '피아노 트리오 2번'을 선택하는 등 도전 의식도 돋보였다. 공연 후 리더를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현주 씨는 메세나 후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 많은 연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메세나 불모지다. 예술인들을 후원하고 키우는 작은 마음들이 모인다면 지역에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향기가 번져 나갈 것이다.

'김냇과 트리오'는 지난달 29일 하남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1층 로비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점심시간에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과 사랑이 시민들에게 다시 이어지는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이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